



리아호나 2013

# 지역 소식

창원 스테이크 통영 와드

## 선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모인 곳

지

금의 통영 와드는 매립지 위에 세워졌다. 1991년 2월의 일이다. 그 당시에는 통영의 옛 지명인 '충무'를 따서 충무 와드라고 불렀다. 통영 앞바다의 울퉁불퉁한 해안가를 빼운 자리에 들어선 통영 와드는 넘실거리는 바다에 접해 있었다. 교회 모임을 끝내고 밖으로 나오면 짙은 바다 내음을 맡을 수 있었다. 바람이 세차게 부는 날이면 소금기 머금은 바닷물이 방울이 되어 통영 와드의 창문을 두드렸다. 십여 년이 지난 지금, 또 다시 매립이

이루어져 통영 와드는 높은 건물들 사이에 둘러싸이게 되었다. 옛날의 정취는 사라져 버렸지만 통영 와드 회원들의 모습은 그때 그대로다.

통영에 복음이 들어온 것은 1981년 2월이었다. 두 명의 선교사가 파견되어 충무 전도사가 세워졌고 같은 해 11월에 충무 지부로 승격되었다. 통영 와드는 빠르게 발전했다. 현재의 자리로 새 건물을 지어 이전한 뒤에는 100여 명의 회원이 참석하기도 했다. 유독 청소년들이 많아 통영 와드는 늘 활기찼다. 바닷바람을 맞으며 푸르게

자라난 청소년들은 신권 지도자가 되었고 전국으로 흩어져 복음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해마다 와드 대회가 열릴 때면 그 옛날의 청소년들이 자신의 가족을 데리고 통영 와드에 참석한다. 평균 참석 인원이 30여 명 수준으로 떨어진 통영 와드는 와드 대회가 되면 다시 활기를 되찾는다.

통영 와드를 감싸고 있는 분위기는 평온함이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서서히 나이가 든 통영 와드 회원들에게는 복음이 생활 그 자체이고, 교회는 또 다른 이름의





가정과 다름 없다. 통영 와드의 권영일 감독은 이렇게 말한다. “바닷가 사람들이 거칠 거라는 선입견과 달리 이곳에는 순수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통영에 복음을 전파했고, 또 이렇게 이어 가고 있습니다.”

통영 와드는 지방의 작은 단위 조직이 으레 그렇듯 나이 많은 회원의 비중이 높다. 그들은 ‘신앙’보다 ‘생활’ 자체가 어렵다. 안식일 아침이면 일찍부터 일어나 단장을 하고 늙고 지친 몸을 이끌고 교회로 향하는 통영의 나이 많은 회원들, 성찬식 내내 꾸벅꾸벅 졸다가 찬송을 부를 때면 목청 높여 주님을 찬양하는 그들이 있기에 통영 와드는 평온하다. 건강이 좋지 않아 참석이 어려운 회원들도 많다. 권영일 감독은 그런 회원들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아프다고 말한다. 한때는 통영 와드의 부흥기를

이끌며 누구보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와드의 어른들이 가난과 병마와 싸우느라 일주일에 한 번 성찬조차 들기 힘든 모습을 보면서 권 감독은 주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다.

통영 와드의 나이 많은 회원들의 소원은 살아 생전 다시 한 번 성전에 참석하는 것이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매달 꼬박꼬박 성전 방문에 참석했던 그들은 이제 서울까지 갈 체력이 없어 그저 사진으로만 성전을 바라보고 있다. 그들에게 남은 것은 신앙뿐이다.

권영일 감독은 말한다. “이 와드의 회원 수를 비약적으로 늘리겠다고 확신하기에는 어려움이 너무나 많습니다. 회원 수보다 회원들이 내적으로 신앙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돋는 것, 그리고 연세 많으신 분들께서 이곳에서 기쁨을 누리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제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통영 와드 회원들은 대부분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하지만 모두 행복하다. 여든이 다 된, 아마 전국을 통틀어 최고령 반주자일지도 모를 허순자 자매의 반주를 듣는 것도 행복이고 매달 첫째 주 새벽마다 회원들이 함께 모여 ‘새벽 기도’를 하는 것도 행복이며 보석처럼 반짝이는 일곱 명의 초등회 어린이들이 커 가는 모습을 보는 것도 행복이다.

통영 와드의 회원들은 꿈꾼다. 주변의 모습은 변했지만 그 푸르름은 여전한 통영의 앞바다처럼 이곳에서 복음이 영원히 이어지기를, 그리고 와드의 회원들이 모두 함께 성전에 방문할 수 있기를 꿈꾼다.

선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모인 곳, 통영. 그들의 신앙은 통영의 바닷물만큼이나 맑고 깨끗하다. ■



## ‘풀뿌리 신앙을 찾아서’ 연재를 마치며

**20** 11년 말 리아호나 지역 소식의 새로운 연재 기사를 계획하던 중 누군가가 의견을 냈습니다.

“회원이 적은 작은 단위 조직을 소개하면 어떨까?”

지역 소식은 여덟 쪽이라는 한정된 공간을 사용할 수밖에 없기에 다수의 회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기사를 주로 실어 왔고 그것이 무언의 규칙이었습니다. 가장 회원 수가 많은 와드, 가장 침례 수가 많은 와드, 가장 리아호나 구독 부수가 많은 와드 등이 주로 소개되었던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그들의 모습을 소개함으로써 다른 회원들에게도 동기부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선한 의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비단 규모가 큰 단위 조직의 회원들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지방의 작은 지부, 성찬 전달을 할 사람이 없어 매주 고심을 하는 그런 곳의 회원도 주님 앞에 부끄럼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들을 찾아 소개해 보자고. 기사의 제목은 ‘풀뿌리 신앙을 찾아서’로 정했습니다.

그 후 2012년 1월호 리아호나 지역 소식에서부터 작은 단위 조직의 회원들을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작은 서울 스테이크 중앙 농아 지부였습니다. 대다수의 관심에서 벗어난, 그런 지부가 있는지조차 잘 알려지지 않았던 중앙 농아 지부의 기사가 나간 후 많은 회원들이 감동을 받았더니 소감을 전해왔습니다. 기사를 잘 썼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중앙 농아 지부 회원들의 신앙에 감동받은 것이었습니다. 뒤이어 부산 스테이크 영도 지부가 소개되었고, 차례로 사천 지부와 경주 지부, 그리고 정읍 와드와 홍성 지부, 제천 지부, 강릉 지부가 소개되었습니다. 리아호나 지역 소식 기자들은 취재를 위해 긴 여행을 해서 해당 지역을 찾았는데, 돌아올 때면 항상 많은 것들을 얻어 왔습니다. 때로는 삶은 감자나 옥수수처럼 정감 가득한 음식이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큰 감동과 깨달음이었습니다. 실제로 작은 단위 조직의 안식일 모임에 참석해 취재를 하다 보면 눈물을 참기 어려운 순간이 많았습니다. 기자는 늘 냉철하게 취재를 해야 하지만 나이 많은 회원들이 간신히 연단에 올라 간증을 하거나, 가난과 병마와

싸우면서도 행복하다고 말하는 회원들의 모습을 볼 때면 마음을 추스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갔던 대부분의 지역은 힘들고 척박한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보다 큰 도시로 떠나 회원 수가 더 이상 늘지 않고 기존의 회원들은 점점 나이가 들어 하나 둘 영의 세계로 떠나가는 그런 곳. 하지만 그곳에서도 신앙의 꽃은 아름답게 피고 있었습니다. 안식일은 행복의 날이었습니다. 간증이 넘쳐흘렀습니다. 그리스도의 크나큰 사랑이 함께 했습니다. 그 모습은 기적 그 자체였습니다. 산이 옮겨지고 바다가 갈리는 것보다 굽은 허리로 지팡이를 짚고 먼 길을 걸어 교회로 향하는 모습이 기적이었습니다. 자신의 지역을 지키기 위해 도시에서 시골로 돌아와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이 기적이었습니다.

소박한 신앙을 소개할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당분간 ‘풀뿌리 신앙을 찾아서’의 연재가 중단되지만 언젠가 다시 이 땅의 ‘풀뿌리’들이 외치는 복음의 찬가를 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복음을 위해 노력하는 이 땅의 모든 충실한 회원들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한국 관리 본부 출판실-



# 서울 스테이크와 서울 북 스테이크가 통합된다

지난 9월 16일, 서울 스테이크와 서울 북 스테이크 회원들이 영등포 와드에 모인 가운데 북아시아 지역 회장단인 야마시타 장로가 역사적인 발표를 했다. 서울 스테이크와 서울 북 스테이크가 통합되어 서울 스테이크로 재탄생 된다는 발표였다. 서울 스테이크는 아시아 대륙 최초의 스테이크로 1973년 3월 8일에 조직되었다. 그 후 1977년에 현재의 서울 남 스테이크인 서울 서 스테이크가 서울 스테이크에서 분리되어 나왔고, 이듬해인 1978년 9월 9일에 서울 서 스테이크에서 서울 북 스테이크가 분리되었다. 원래가 한 가족이었던 두 스테이크는 35년 만에 다시 합치게 된 것이다. 이날 모임에서는 통합된 서울 스테이크를 이끌 새로운 스테이크 회장단도 발표되었다. 회장에는 박성식 형제가 부름받았고, 제1보좌와 제2보좌에는 각각 허정훈 형제와 구본훈 형제가 부름 받았다.

통합과 관련하여 박성식 회장과 인터뷰를 가졌다.

- 지역 소식: 서울 스테이크와 서울 북 스테이크가 통합되어 ‘서울 스테이크’가 되었습니다. 또한 스테이크 내에서도 신촌 와드와 서대문 와드가 통합되고 신당 와드와 삼청 와드가 통합되는 등 계속해서 통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합의 의미와 의의는 무엇입니까?
- 박성식 회장: 주님은 시대에 따라 서로 다른 방편으로

그분의 백성들을 의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어떤 때는 집합이고, 어떤 때는 분산입니다. 과거에는 분산을 통해서 이 땅의 백성들에게 복음을 널리 알리고 많은 지도자들을 키워 냈다면, 이제는 성도들을 함께 모으고 지도력을 결집함으로써 응집된 힘을 갖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의 통합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전에는 가지지 못했던 힘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힘으로 성도들을 지키고, 복음을 널리 전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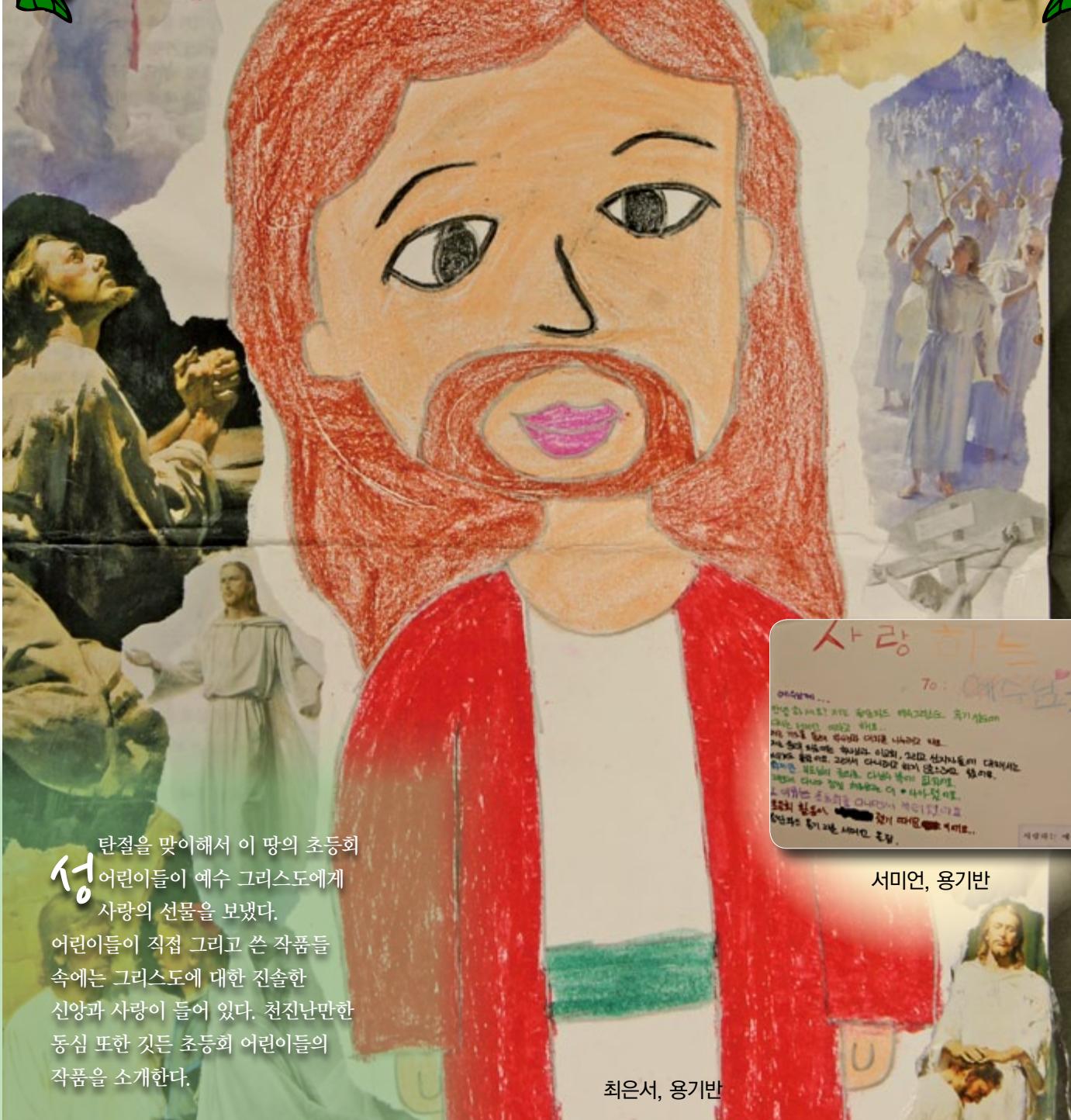
- 지역 소식: 통합된 스테이크를 이끌게 되는데 향후 비전은 무엇입니까?
- 박성식 회장: 성도들을 더 큰 행복한 신앙생활로 인도할 것입니다. 더 많은 시간을 가족과 함께하도록 배려하여 가정이 복음으로 더욱 충만해질 수 있도록 돋겠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을 더 훌륭하게 키워 낼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유혹이 많은 시대에 청소년들을 온전하게 지키고, 그들에게 복음의 충만함을 가르쳐 미래의 훌륭한 지도자로 성장하도록 돋겠습니다.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이웃들이 보고 칭송할 것이며, 이것이 선교 사업의 힘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지역 소식: 스테이크 회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전해 주십시오.

- 박성식 회장: 기회와 위기는 함께 찾아옵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는 우리의 몫입니다. 저는 우리 스테이크 성도들이 주님의 시각으로 통합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통합의 진정한 힘은 개인과 가족으로부터 나온다고 믿습니다. 이 시기에 성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자신과 가족의 신앙을 살펴보고, 경전과 기도와 성전을 통해서 더욱 합당하게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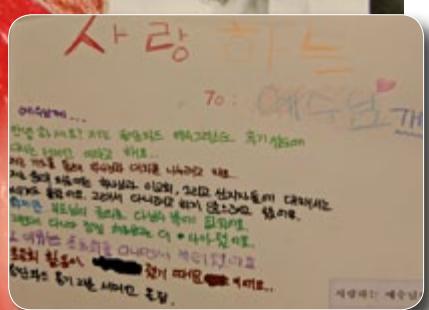
# “사랑하는 예수님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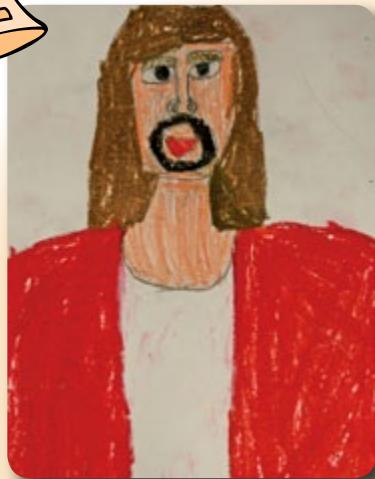
성 탄절을 맞이해서 이 땅의 초등회  
어린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랑의 선물을 보냈다.

여린이들이 직접 그리고 쓴 작품들  
속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진솔한  
신앙과 사랑이 들어 있다. 천진난만한  
동심 또한 깃든 초등회 어린이들의  
작품을 소개한다.

최은서, 용기반



서미언, 용기반



김주영, 정의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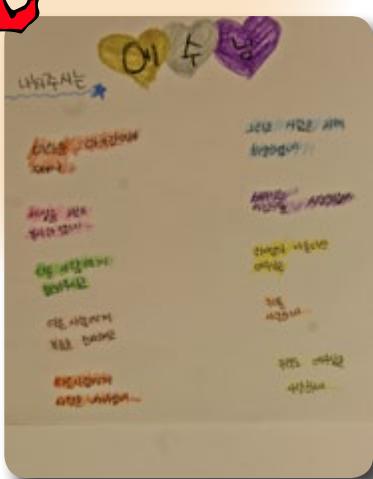
정소은, 용기반



김해마, 정의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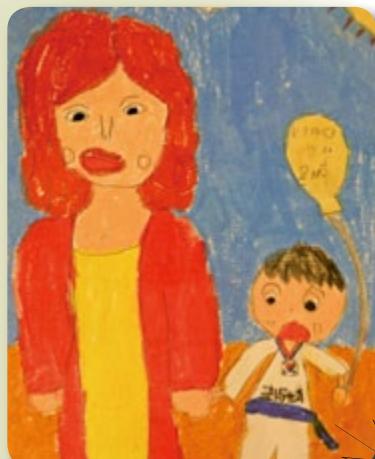
임성진, 용기반



조수현, 용기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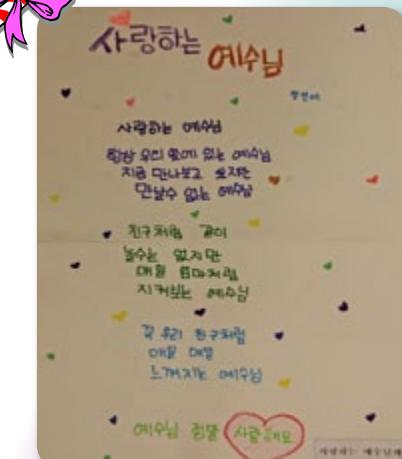
강한영, 용기반



전성현, 용기반



조경민, 정의반



정인서, 용기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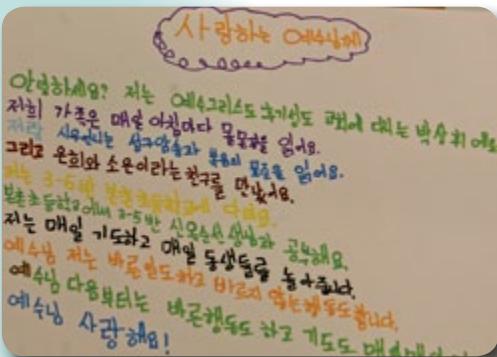




김소율, 정의반



이지윤, 정의반



박상휘, 용기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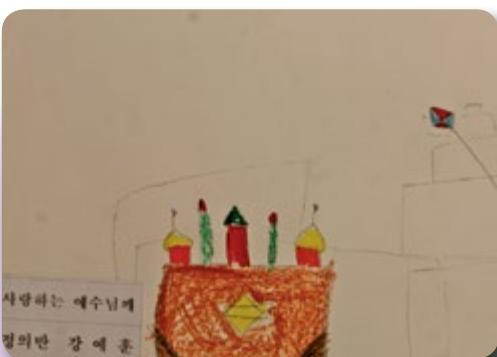
이서연, 정의반



김초이, 용기반



임석진, 용기반



강예훈, 정의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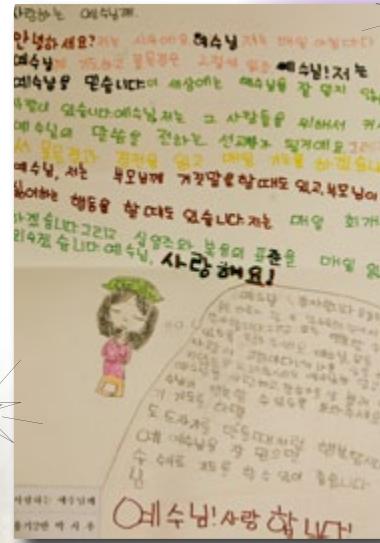
강주영, 정의반



강찬영, 용기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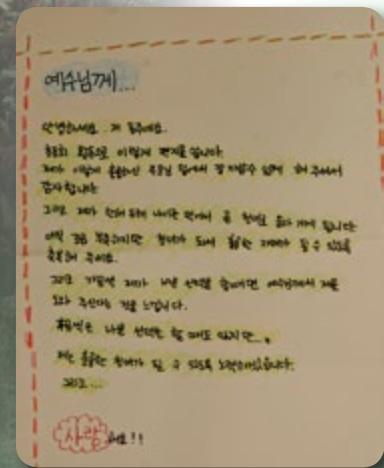
김해찬, 용기반



박시우, 용기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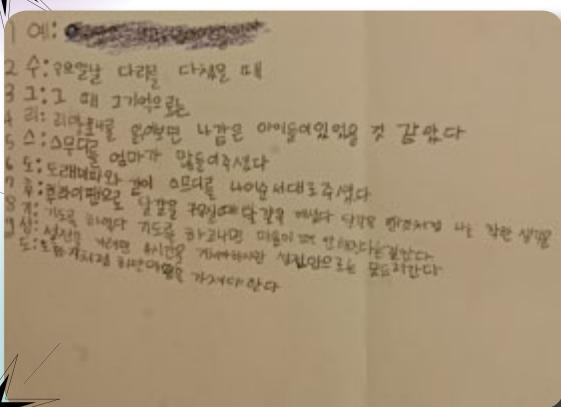
문지율, 유아반



윤동주, 용기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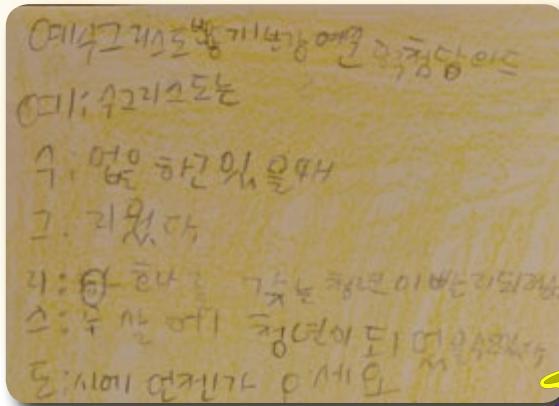
천민지, 정의반



최은영, 용기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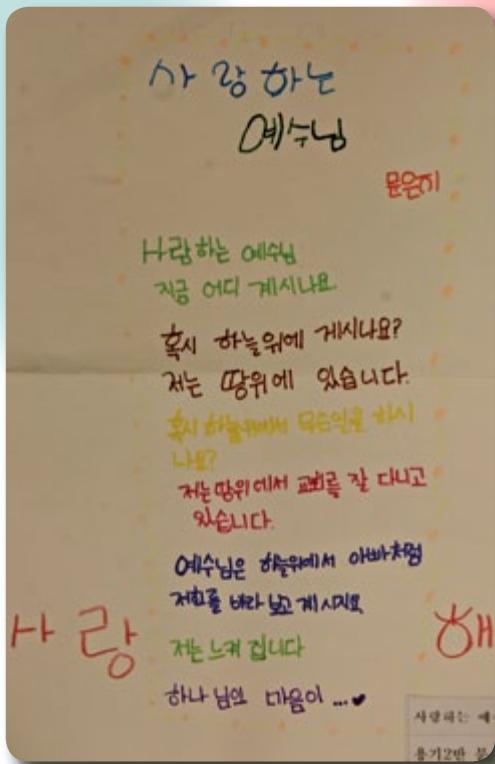
진동현, 정의반



강예준, 용기반



박상빈, 정의반



문은지, 용기반



**살**

다 보면 많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시간을 사용할지, 가진 돈으로 무엇을 할지,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 우리가 지닌 재능과 은사 중 어떤 것을 발전시키고 어떤 것을 무시할지, 영적인 것을 추구할지 아니면 현세적인 것을 추구할지 등을 선택합니다. 이런 선택을 할 때, 우리가 어디에서 왔고, 왜 여기에 있으며,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확고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런 이해가 없다면 우리는 자신의 필요와 욕구, 욕망에만 중점을 두게 되어 방황할 것입니다. 자신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개인의 이익과 세상적인 만족에 중점을 두는 사람을 종종 “육에 속한 사람”이라 부릅니다.

베냐민 왕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백성들을 가르치면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적이라, 아담의 타락 때로부터 그려하였고 영원무궁토록 그려할 것임이니라.”(모사이야서 3:19)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세상과 우리의 삶, 선택의지, 은사와 재능들, 우리가 받는 영적이고 세속적인 축복들을 인식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는 것을 잊어버리거나 게을리하는 것은 우리가 육에 속한 남성과 여성이 되어 간다는 표시가 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몰라보고, 곤궁에 처한 사람을 만났을 때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는 것도 다른 표시가 될 것입니다.

몰몬경의 또 다른 위대한 교사인 앤마 이세는 심각한 죄를 저지른 그의 아들 코리앤톤을 다른 표현으로 훈계하면서 “이제 내 아들아, 나는 네가 회개하고 네 죄를 버리며, 더 이상 네 눈의 탐욕을 따라가지 말고, 도리어 이 모든 일에 네 스스로를 부인하기 바라노라. 이는 네가 이렇게 하지 아니할진대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없음이니라. 오 기억하고, 이를 깊어지며, 이 모든 일에 네 스스로를 부인하라.”(앨마서 39:9)라고 말했습니다. 이 지상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것보다 세상의 즐거움을 탐nik하고 자신의 제국을 세우기에 전념하는 것 또한 우리 안에서 육에 속한 사람이 되는 표시일 것입니다.

앤마가 말한 대로, 스스로를 부인하는 행동은 중요할 뿐만 아니라 필수적이기까지 합니다. 자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스스로를 부인해야 합니다. 생계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십일조와 현물을 바치며, 매달 약간의 현금을 저축하고, 수입보다 더 적게 지출하는 것은 스스로를 부인하고, 더 높은

이상을 위해 육에 속한 사람을 제쳐 두었다는 증거입니다. 더 좋은 것을 위하여 좋은 것을 희생하는 것은 스스로를 부인하는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시간과 돈, 힘, 주님께서 주신 재능이든지 하늘에서 내린 다른 은사들과 축복들을 사용하는 것이든지 간에, 온전히 스스로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것을 돋고자 하는 소망이 깃든 지속적인 감사의 외침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육체적, 감정적, 현세적, 영적, 사회적인 감사일 수 있습니다.

베냐민 왕은 위대한 교사였으므로 육에 속한 사람을 극복하거나 스스로를 부인하는 방법으로 “이는 성령의 이끄심을 따르며, 육에 속한 사람을 벗어 버리고 주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성도가 되며, 어린아이와 같이 되고, 유순, 온유, 겸손, 인내하며, 사랑이 충만하게 되어, 주께서 합당하게 여겨 그에게 내리시는 모든 것에 기꺼이 복종하고자 하기를, 아이가 참으로 그 아버지에게 복종함 같이 하[라]”(모사이야서 3:19)라고 알려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또한 동일한 내용을 가르치시며, “이러한 것들을 거절하고 너희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음이니라.”(제3니파이 12:30)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곳에서 먼저 계셨던 경우에 구주께서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인니라.”(누가 복음 9:23)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날마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것은 자신을 돌아보고 또 돌아볼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길에서 벗어나며 중간에 포기하는지를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은 스스로를 부인하고 육에 속한 사람을 버리는 일의 좋은 본보기입니다. 몬슨 회장님은 외로운 미망인을 찾아가 위로하고, 해외에서 이민 온 가족에게 관심을 보이며, 먼 타국에서 복무하는 군인에게 편지를 보내고, 병든 자들을 방문하여 축복하며,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돋고, 참된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 대회에서 이야기를 나누며, 주님께서 행하기 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 자신의 욕구와 필요를 계속해서 뒤로해 왔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부인하고 더욱 그리스도와 같이 되려 노력하는 데 있어 몬슨 회장님은 우리가 따를 수 있는 본보기입니다. ■



###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나는 캄보디아에서 잠시 생활하게 되었다. 그곳 언어는 물론이고 지리도 몰랐던 나는 교회를 찾지 못해 애를 먹었다. 결국 한 주 예배를 보지 못했고 그 다음 주 안식일에는 꼭 교회에 참석하기 위해 마음을 단단히 먹었다. 하지만 면 타국 땅에서 교회를 찾을 확률은 희박해 보였다. 그래도 신앙으로 인도를 구하면 찾을 수 있으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무작정 걷기 시작했다. 무척 더운데다가 교통편도 몰라 무척 힘들었지만 나는 ‘성도들아 두려울 것 없다’를 소리 내어 부르며 당당하게 걸었다. 얼마나 걸었을까, 생전 처음 보는 캄보디아 사람이 나를 보더니 자신의 오토바이 뒤에 따라며 손짓을 했다. 아마 혼자서 걷고 있는 내 모습이 안타까웠던 모양이다. 나는 그 오토바이에 타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 그분과는 말이 안 통했기 때문에 영어를 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PC 방을 찾았고, 그곳에서 다시 지도를 검색해 교회 위치를 알 수 있었다. 그분은 PC방 요금도 대신 내 주셨다. 그리고는 네댓 번 이상 길을 되문기를 반복하면서 내가 교회 찾는 걸을 도와주셨다. 마침내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라는 간판을 발견했고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시간이 늦어서 성찬식에 참석할 수는 없었지만 나는 교회에 들어가 주일학교 공과를 들으며 평안을 느낄 수 있었다. 낮선 캄보디아인의 친절이 아니었다면 결코 누리지 못했을 평안이었다. 나는 주님께서 그분을 내게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안다.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바로 주님이시다. ■

〈박훈민 형제, 서울 동 스테이크〉

### 2013년 리아호나 지역 소식이 새로운 기사를 모집합니다

**20** 13년 리아호나 지역 소식의 새로운 연재 기사 주제는 ‘가족 역사 사업’입니다. 가족 역사 사업을 충실히 행하고 있는 각 단위 조직이나 개인의 경험담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가족 역사 사업을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 가족 역사 사업을 통해 얻은 간증, 가족 역사 사업을 하는 동안 겪었던 특별한 경험 등, 독자 여러분의 투고와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연재 기사 주제는 ‘조직별 성공 사례’입니다. 조직별 모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을 찾아서 그 성공 비결과 노하우 등을 소개할 계획입니다. 이 또한 독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초등회, 청남, 청녀, 상호부조회, 주일학교, 신권회 등 각 조직별 모임이나 활동이 잘 진행되는 곳을 알고 계시다면 투고와 제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올해에도 ‘한국 성도의 소리’와 ‘침례의 물가에서’ 기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얻게 된 특별한 간증과 갓 개종한 회원들의 뜨거운 간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기사는 아래 주소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주소: 서울시 중구 신당6동 103-1번지 3층  
리아호나 지역 소식 앞  
이메일: aron1979@hanmail.net  
전화: 080-232-1441(내선 564)

# 새로 부름 받은 선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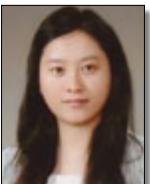
새로 부름 받은 선교사 국내 17명/해외 3명



권동엽 장로  
서울 북 스테이크  
신촌 와드  
대전 선교부



김가연 자매  
울산 지방부  
방어진 지부  
콜로라도 덴버 남  
선교부



이정빈 자매  
광주 스테이크  
나주 지부  
서울 선교부



정명숙 자매  
인천 스테이크  
답동 와드  
한국 서울 성전



김용호 장로  
수원 스테이크  
평택 와드  
서울 선교부



김인겸 장로  
서울 남 스테이크  
영등포 와드  
대전 선교부



최예인 자매  
서울 남 스테이크  
강남 와드  
부산 선교부



최용섭 장로  
서울 강서 스테이크  
목동 와드  
캘리포니아 애너하임  
선교부



문병관 장로  
서울 남 스테이크  
영등포 와드  
부산 선교부



문호범 장로  
울산 지방부  
회계 지부  
서울 선교부



한진형 장로  
서울 대문문 스테이크  
중랑 와드  
대전 선교부



오은별 자매  
부산 스테이크  
해운대 와드  
서울 선교부



박세영 자매  
수원 스테이크  
신갈 와드  
부산 선교부



설명우 장로  
대전 스테이크  
둔산 와드  
서울 선교부



양우리 장로  
서울 스테이크  
서대문 와드  
대전 선교부



윤현식 장로  
창원 스테이크  
밀양 지부  
부산 선교부



이승봉 장로  
부산 스테이크  
구포 지부  
서울 선교부



이승형 장로  
서울 강서 스테이크  
부천 와드  
미네소타  
미니애파리스 선교부



이우현 장로  
창원 스테이크  
진해 와드  
대전 선교부



이원형 장로  
전주 스테이크  
중앙 와드  
서울 선교부

## 여원 및 단위 조직 명칭 변경

### 강릉 지방부

속초 지부 회장: Camden L. Stein 장로(전임: 김일환 장로)  
태백 지부 회장: 이우영(전임: Tyson S. Decker 장로)

### 서울 스테이크

서울 스테이크와 서울 북 스테이크가 통합하여 서울 스테이크가 됨  
서울 스테이크 회장: 박성식(전임: 배동철(서울), 박성식(서울 북))  
서울 스테이크 회장단 제1보좌: 허정훈(전임: 허정훈(서울),  
이성진(서울 북))  
서울 스테이크 회장단 제2보좌: 구본훈(전임: 이상균(서울),  
구본훈(서울 북))  
신촌 와드와 서대문 와드가 통합되어 신촌 와드가 됨  
신촌 와드 감독: 김남수(전임: 남복출)

### 서울 강서 스테이크

시흥 와드 감독: 윤효중(전임: 김종인)

### 제주 지방부

제주 지방부 회장: 윤성조(전임: 이명훈)  
제주 지방부 회장단 제1보좌: 좌훈탁(전임: 윤성조)  
제주 지방부 회장단 제2보좌: 문경호

### 창원 스테이크

밀양 지부 회장: 김영수(전임: 정영신)